

2025.7.15.(화) 즉시 (온라인 보도) 2025.7.15.(화) 10:00

배터리 화재,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막는다!

-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678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 급증
-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증과 함께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다.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특히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가구가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 시에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생활안전과	책임자	생활안전과장 천창섭 (044-205-7660)
		담당자	소방령 모영목 (044-205-7661)
		담당자	소방경 황인석 (044-205-7662)

참고

최근 5년(2020~2024)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통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소 계	98	106	178	179	117	678
전동 킥보드	80	85	142	114	64	485
전기 자전거	6	11	23	42	29	111
휴대폰	4	7	6	12	12	41
전기 오토바이	4	3	6	9	9	31
전자 담배	4	0	1	2	3	10